

흐룬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Groen van Prinsterer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ristian worldview of G. Groen van Prinsterer(1801-1876), a Dutch Christian politician and historian. Against the liberal, revolutionary and humanistic worldview that prevailed in Europe in the late 19th century, he developed a Christian view of history, state, politics, and education based on the Bible that acknowledges God's sovereignty in all areas. Through media, publications, and other concrete activities, he tried to transform the Dutch reformed church and society. In particular, he was a pioneer of Christian political party and at the same time acted as the leader of the so-called 'school struggle', which fought for Christian schools to receiv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an equal basis with public schools. In this way, Groen made a decisive influence on Abraham Kuyper who succeeded him. He argued that the Protestant Netherlands was born by God's providence, and so criticized the spirit of the French Revolution as an unbelief in God. Furthermore, he made a lot of impact all over the world. Since his Christian worldview is very important and has deep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in Korea, this article first examines his life and analyzes his Christian worldview especially on history-state, politics and education. After his legacy is mentioned, a conclusion is drawn with some lessons he gives in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Groen van Prinsterer, revolution, unbelief, Christian politics, Christian school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5일 최종수정, 9월 11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히욀 흐룬 판 프린스터러(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는 네덜란드의 역사가요 법률가인 동시에 기독교 정치인으로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특히 기독교 정당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그는 기독교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소위 ‘학교 투쟁(schoolstrijd: 1806-1917)’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나중에 그의 후계자가 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젊은 시절에는 그도 자유주의자였으나 1830년경 부흥 운동(Réveil)¹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 정통주의로 전향하여 반모더니즘 운동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는 종교란 삶의 원리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흐룬은 그의 책 『조국의 역사 편람(*Handboek der geschiedenis van het vaderland*)』에서 네덜란드가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80년간 독립전쟁(1567-1648)을 치른 것을 통해 드러나듯 네덜란드의 역사를 ‘복음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보았다(Van Prinsterer, 1846). 나아가 『불신앙과 혁명(*Ongeloof en Revolutie*)』이라는 주저에서 그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뿌리는 결국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불신앙이라고 비판했다(Van Prinsterer, 1847). 나아가 그는 하원 의원(1849-57, 1862-66)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자유주의 내각을 비판하고 기독교 정당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의 사후 카이퍼가 1879년에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ARP: Anti-Revolutionaire Partij)²을 창당하게 되었다.

흐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네덜란드어와 영어 및 아프리카언어로 된 문헌은 있으나(Vos, 1886-1891 ; Diepenhorst, 1932 ; Smitskamp, 1945 ; Mulder, 1973; Schutte, 1976 ; Langley, 1989 ; Schlebusch, 2018 ; Van Dyke, 2019 등) 국내 한글로 된 연구는 정성구 및 성희찬의 일반적인 논문과 조성국이 발표한 흐룬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논문 외에는 거의 없다(정성구, 1977 ; 성희찬,

1) 이 운동(1815-1865)은 19세기 유럽 일부에서 개혁주의의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역사가, 언어학자, 시인, 변호사였던 빌더데이크(Willem Bilderdijk, 1756-1831)가 이 운동의 아버지였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며 암스테르담의 시인이자 역사가였던 다 코스타(Isaac da Costa, 1798-1860) 및 흐룬은 그의 학생이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및 독일 남부에서도 개혁과 부흥이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개인적 체험과 내적인 확신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적 구제에 참여함을 강조했다(Van Dyke, 1989: 21).

2) 반혁명당은 1879년부터 1980년까지 활동한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교 정당으로 1918년에 창당한 로마가톨릭 국가당(RKSP: Roomsche-Katholieke Staatspartij)과 달리 개신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다. 반혁명 전당대회는 1840년대부터 열렸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의 정통경향을 나타내었다. 흐룬의 지도로 반혁명가들은 진정한 정치 세력이 되어 개혁교회 및 정치의 자유주의 경향에 반대했다. ‘반혁명’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프랑스 혁명 정신에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1980년에 반혁명당은 가톨릭 인민당(KVP: Katholieke Volkspartij) 및 기독교 역사연합(CHU: Christelijk- Historische Unie)과 합쳐 기독교민주연합(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으로 재창당했다.

2014 ; 조성국, 2019). 하지만 필자는 그의 기독교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상황에 던지는 함의도 깊다고 본다. 가령 그는 칼빈주의 사상가 중 1868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불신앙과 혁명』 제 2판 서문에서 ‘세계관’(wereldbeschouwing)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면서 자신의 기독교적 확신을 “기독교-역사적, 혹은 반혁명적 세계관(eener christelijk-historische of anti-revolutionaire wereldbeschouwing)”이라고 말하였는데(Groen van Prinsterer, 1868: xv) 이는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이 역사적인 종교개혁 전통에 근거한 것이며, ‘반혁명적’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에 나타난 19세기 모더니즘 시대정신을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기독교 세계관을 역사 및 국가관, 정치관 및 교육관의 순서로 고찰하고 그의 유산을 분석한 후 그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겠다.

II. 흐룬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1. 흐룬 판 프린스터리의 생애와 저작

흐룬은 궁중 의사였던 뻬트루스 흐룬 판 프린스터리(Petrus Jacobus Groen van Prinsterer)와 로테르담 은행가의 딸이었던 아드리아나 깐(Adriana Hendrika Caan)의 아들로 1801년에 헤이그 근처의 포어부르흐(Voorburg)에서 태어나 보수적인 왈롱 개혁교회(Waals-hervormd kerk)³에서 자랐다. 그가 10세가 된 1810년에 나폴레옹은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합병하였으나 1813년에 연합군이 네덜란드에 들어오면서 다시 해방을 맞았다. 이처럼 그는 어릴 때 이미 격동하는 국내외 사건을 체험하였다. 그 후 흐룬은 나중에 그의 정치적 반대자가 된 요한 토르베케(Johan Rudolph Thorbecke)⁴와 함께 레이든 대학에서 공부하며 문학과 법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역사적인 법학파를 배운 후 1823년 12월 17일,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하루에 두 개의 박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Langley, 1989: 2). 그 후 1828년에 흐로닝엔(Groningen) 시장의 딸이었던 엘리사벳 판 테어 호프(Elizabeth Maria Magdalena van der Hoop)와 결혼했으나 자녀는

3) 왈롱 교회(프랑스어: Église wallonne)는 네덜란드와 이전 식민지에 있는 칼빈주의 교회로, 교인은 원래 남부 네덜란드와 프랑스 출신이며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이 교회의 구성원은 왈롱 개혁교회(Waals Reformé, 프랑스어: Réformé wallon)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네덜란드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Nederduits Reformé)와 구별되었다.

4) 요한 토르베케(Johan Rudolph Thorbecke, 1798-1872)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1848년에 사실상 혼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왕의 권한을 줄이면서 주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종교적, 개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했다.

없었다. 그의 아내도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부부는 상류층이었으나 경건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나중에는 흐룬은 노동자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Van Dyke, 1989: 45).

흐룬은 부친의 권유로 1827년부터 1833년까지 네덜란드 국왕 빌름 2세(Willem II, 1792-1849)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왕실 문서 보관소에 출입하며 왕실 역사에 중요한 서신들을 정리하고 불어로 각주를 달아 『오란여-나사우 왕가의 자료(Archives ou correspondance inédite de la maison d' Orange-Nassau)』를 편찬하였다(Van Prinsterer, 1835). 그가 왕을 따라 브뤼셀에 잠시 머물 동안 스위스 출신의 개신교 목사이자 궁정 목사로 종교개혁 역사가였던 메를 도비네(Jean-Henri Merle d'Aubigné, 1794-1872)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당시 유럽에 퍼진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흐룬도 이 기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신앙이 세계관과 학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찰하여 1983년에 『진리가 알려지고 확증되는 방법에 관한 검증(Proeve over de middelen waardoor de waarheid wordt gekend en gestaafd.)』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인간이 확실한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에 대해 철학, 역사, 만인의 동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열거한 후 이 중에 최종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계시라고 주장한다(Van Prinsterer, 1834: 147-50, 188). 이때부터 그는 네덜란드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Mulder, 1976: 25-26).

그 후 흐룬은 1834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Hervormde Kerk)에서 떨어져(afscheiding) 나온 분리주의자들을 국가가 처벌하려고 할 때 그들을 옹호하면서 1816년에 왕이 직접 교회를 치리하는 일반 규정(het Algemeene Reglement)을 반대했다. 그는 네덜란드 국가개혁교회와 단절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개혁교회 너머 국가 및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개혁 교단(Gereformeerde Gezindte)⁵를 통합했으며 그들과 계속 교제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엘리트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소위 '서민(kleine luyden)' 출신의 분리주의자들을 동지로 보았다. 또한, 그는 1842년에 몇몇 동료들과 함께 헤이그에서 열린 교회 총회에 “신조와 목사 교육, 교육과 교회 행정 조직에 대해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에 보내는 탄원서(Adres aan de Algemeene Synode der Nederlandsche Hervormde Kerk over de formulieren, de academische opleiding der predikanten, het onderwijs en het kerkbestuur)”를 제출하여 1816년 이전 교회 조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것은 19세기에 계속된 교회 회복을 위한 사법 투쟁의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카이퍼가 주도한 돌레안치(Doleantie)⁶ 운동의 사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흐룬은 진정한

5) 개혁 교단이라는 용어는 흐룬이 만들어 스스로 “개혁파”라고 부르며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지만, 핵심은 세 가지 즉 네덜란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및 도르트 신조를 고백한다.

교회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가난한 아동을 위한 보육원,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세웠으며 1845년에는 당시 복음주의 사회운동가 헬드링(Otto G. Heldring, 1804-1876)과 함께 “기독교신우회(Christelijke Vrienden)”를 조직하여 기독교 학교 설립 및 사회 자선 운동도 시행하였다.

1846년에 그가 출판한 『조국의 역사 편람』은 칼빈주의적이며 오란여 왕가 중심적 민족주의를 지지한다. 이듬해에 출간한 『불신앙과 혁명』은 원래 그가 1845년 11월부터 1846년 4월 사이에 선택된 20여 명의 동지에게 한 15번의 강의 모음집으로 역사 연구인 동시에 정치적 선언문으로서 주로 당시의 자유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으로, 프랑스 혁명 정신인 자유, 평등 및 국민의 주권과 사회계약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성희찬은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으며(성희찬, 2014), 조성국은 흐룬의 전체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의와 도덕과 자유의 원천이고,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권위의 원천이다... 둘째, 삶 전체가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는 방식의 종교로서, 오직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을 뿐이므로 종교의 영역과 중립적인 세속의 영역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셋째, 칼빈주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모든 진리는 십자가 보혈을 통한 화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제한된 권세를 공직자들에게 부여하시므로,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섯째, 역사의 중심은 기독교이며,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의 주된 문제로서 다른 모든 것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다. (조성국, 209: 18-20)

흐룬은 그 후 네덜란드 정치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면서, 점차 반혁명당 창립을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어 성경적 원칙이 정치에서도 실행되기를 원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하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정치적 저술가로서도 활동했는데 다양한 팸플릿을 통해 1848년과 1849년의 헌법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령 1850년부터 1855년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신문인 『네덜란드인(De Nederlander)』에 매일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당시 보조금을 받지 못했

6) 돌레안치(Doleantie, 라틴어 dolere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뜻)는 1886년에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의 지도로 일어난 네덜란드 개혁교회(Nederlands Hervormde Kerk) 분열의 이름이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첫 번째 분파가 1834년에 분리(Afscheiding)로 인해 네덜란드에 기독교 개혁교회(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가 형성된 후 두 번째로 분리한 사건이다.

고 국가 통합에 해롭다는 이유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된 기독 교육을 옹호했고 초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한 교육법에 맞서 싸웠다. 1857년에 새로운 초등교육법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그는 이를 비판하면서 하원 의원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1860년에 그는 전국 기독학교 교육협회(CNS: de Vereniging voor Christelijk Nationaal Schoolonderwijs)를 조직하였고 『정교분리와 관련한 기독 국가 교육의 자유(*Vrijheid van christelijk nationaal onderwijs, in verband met scheiding van kerk en staat*, 1864)』라는 팸플릿도 출간하며 기독 학교 운동을 주도했다.

흐룬은 독일의 법철학자와 정치인으로서 그리스도인도 정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슈탈(Friedrich Julius Stahl, 1802-1861)과 프로이센의 정치가요 판사였던 폰 게를라흐(Ernst Ludwig von Gerlach, 1795-1877)와 함께 국회에서 자유주의와 싸웠다. 대외적으로 그는 1810년에 네덜란드가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프랑스 영토가 되었으나 1815년 빈 회의의 결과 네덜란드 왕국으로 새롭게 독립하였는데 이 빈(Wien) 회의에서의 합의가 네덜란드 같은 작은 국가의 독립을 위한 유일한 보호책으로 유지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독일을 통일하여 독일 제국을 건설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Fürst von Bismarck-Schönhausen, 1815-1898) 정부가 1864년 덴마크와 1866년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기존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자 『프로이센과 네덜란드. 베를린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La Prusse et les Pays-Bas. À mes amis de Berlin*, 1867)』 및 『프로이센 제국과 묵시록. 베를린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L'empire prussien et l'apocalypse. À mes amis de Berlin*, 1867)』라는 팸플릿에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흐룬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기조(François Pierre Guillaume Guizot, 1787-1874)의 영향도 받았는데 이것은 그의 『조국의 역사 편람』과 미국의 작가이자 외교관이며 역사가였던 모틀리(John Lothrop Motley, 1814-1877)가 연합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관이었고 오랫동안 오란여 왕가의 마우리츠(Maurits van Oranje, 1567-1625) 왕자와 긴밀히 협력했지만 결국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공개 참수형을 당한 판 올덴바르너펠트(Johan van Oldenbarnevelt, 1547-1619)에 관해 쓴 책(Motley, 1874)을 비판하면서 불어로 출판한 『모리스와 바르너펠트. 역사 연구(*Maurice et Barnevelt. Étude historique*, 1875)』에서 나타난다. 나아가 흐룬은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토르베케가 헌법 개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경건하지 않고 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했으며 187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2. 흐룬의 역사 및 국가관

흐룬은 『오란여-나사우 왕가의 자료』를 출판하면서 역사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다. 그의

역사관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는 성경이 계시한 진리를 계속해서 확증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본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했다. 그의 관심은 먼저 유럽의 역사 속에서 당시 네덜란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럽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과 함께 이성, 과학 및 기술을 통해 인류는 무한히 진보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진화론,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회진화론 그리고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등은 인간사회의 진보를 주장했다. 하지만 흐른은 이러한 진보주의와 낙관주의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간과하는 비성경적 사상이라고 비판했다(Van Prinsterer, 1829). 나아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권위도 부정되면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자 흐른은 1829년 『네덜란드 사상(De Nederlandsche Gedachten)』이라는 잡지를 3년간 지속하여 발행하면서 특히 벨기에 혁명⁷을 직접 목격한 후 모든 폭력에서 분출한 ‘혁명 정신’에 반대했다. 그러므로 1829년은 정당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반혁명 운동이 탄생한 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사상』이라는 이름은 이 잡지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흐른은 당시 네덜란드인들의 국가적 인식을 일깨우고 싶었으며 하나님, 네덜란드 및 오란여 왕가⁸는 서로 연결된 삼중 코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계몽주의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이며 이를 통해 깨어진 언약이 회복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의 중보자이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Van Prinsterer, 1834: 20-21).

그러므로 흐른은 성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과 같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Civitas Dei)와 이 세상의 나라(Civitas Terrena)가 대립하지만 결국 하늘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했다(Van Prinsterer, 1834: 59).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중심이다((Van Prinsterer, 1834: 131). 역사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중심에는 교회, 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보존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역사를 통일하는 원리이고 역사의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증거하며 불신앙과 미신에 대해 계속 대적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벨기에 혁명(프랑스어: Révolution belge, 네덜란드어: Belgische Revolutie)은 1830년 8월에 벨기에가 네덜란드 연합왕국으로부터 로마가톨릭 국가로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가리킨다.

8) 오란여-나사우 가문(네덜란드어: Huis van Oranje-Nassau)은 현재 네덜란드를 다스리는 가문이다. 이 가문은 특히 80년 전쟁(1568-1648) 이후 스페인 통치에 대하여 네덜란드 반란을 조직한 빌럼 1세 이후로 네덜란드와 유럽의 정치와 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역사의 노정에 빛이다. 성경이 없다면 세계 역사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내용과 목적을 안다: 에덴동산에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며 시험하는 자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주셨고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과 시대의 운명은 주님 교회의 설립, 유지 그리고 영화에 종속된다(Van Prinsterer, 1846: 1).

나아가 흐룬은 『조국의 역사 편람』에서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섭리로 탄생했다고 보았고 그의 주저 『불신앙과 혁명』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 점증하는 세속주의를 비판하고 교회와 국가에 만연한 자유주의를 경계하면서 성경적 원칙에 따라 올바른 역사적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복음이 국가와 사회에서 떠나면 세속적인 자유 이념이 무정부 상황을 낳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독재자가 출현하므로 세속주의는 결국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유럽 사회의 영적 기초를 전복시킨 ‘지적’ 혁명의 구체적인 열매였으며 뿌리 깊은 주관주의와 그 결과인 회의주의는 계몽주의가 인간의 삶에 제정된 신적 계시와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권위도 부인하는 정치철학을 낳아 결국 무신론과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Van Dyke, 1989: 3). 본서를 더 자세히 보면 1-2장에서 그는 서론 및 혁명 시대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며 세계사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3-5장에서는 반혁명의 원리 및 흔히 혁명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나 실제로는 틀린 원인을 다룬다. 6-7장은 혁명의 발생을 설명하는 두 원인, 즉 근대 국가법과 종교개혁을 서술한다. 흐룬은 여기서 근대 국가법이 혁명의 정신을 초래하였지만, 종교개혁은 혁명 정신을 바르게 저지하였음을 지적한다. 8-10장은 혁명이 불신앙적이며 자연과 법에 반함을 논술하며, 11-14장은 혁명의 실제와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15장은 결론으로 현재와 미래에 네덜란드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자의 소명을 다루면서 인본주의화된 유럽 사회는 앞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지 않는 한 지속해서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흐룬의 전기 작가 까이빠(Roel Kuiper)는 흐룬이 종종 영국의 정치인이자 연설가였던 버크(Edmund Burke, 1729-1797) 및 기조와 같은 외국 작가들을 언급했고 슈탈과 프랑스의 역사학자 미셸레(Jules Michelet, 1798-1874)는 불어와 라틴어로 직접 인용했으며, 때로 축약형과 불완전한 문장도 반복하여 사용해 이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Kuiper, 2001). 하지만 흐룬의 요점은 대중주권에 기초한 ‘혁명적’ 국가를 반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위는 그에게서 나오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는 폭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라운(Robert

Fruin)이 신권정치와 절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흐른을 비판하자 흐른은 성경적 역사 및 국가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과감히 맞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것은 나중에 카이퍼에 의해 계승되어 반혁명당을 창당한 후 구체적인 강령을 제시하면서 의회에 진출하여 활동하였고(Kuyper, 1880; 손기화 역, 2018),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칼빈주의’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강연을 하면서 세 번째로 ‘칼빈주의와 정치’에 관해 강의했으며(Kuyper, 1899 ; 박태현 역, 2021) 수상으로 재직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의 마지막 저작도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kunde)』이었다(Kuyper, 1916).

그 후 1860년에 흐른은 프랑스, 스위스 및 기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네덜란드 반혁명 운동 상황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반혁명 및 고백당: 현대사 연구(Le parti anti-révolutionnaire et confessionnel dans l'église réformée des Pays-Bas: Etude d'histoire contemporaine)』을 출판하였다. 본서는 영어로도 번역되었는데(Wright, 2015) 여기서 그는 자신이 주도한 반혁명 운동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가짐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혁명으로 드러난 무신론에 대한 대안적 원리로 돌트 신조⁹에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판 에센(Van Essen)은 그의 역사관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다.

1. 역사의 의미: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계시되었고 그것이 역사의 의미이다.
2. 역사에서 인과율: 1) 하나님과 개인 (또는 국가들) 간의 관계: 신앙과 순종은 축복을 낳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심판을 낳는다. 2) 사상의 영향과 관련하여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3)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의 본질과 성격은 인간이 바꿀 수 없으며 역사의 과정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4) 시간은 확정적 효과가 있어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5) 인과율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분리되어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Van Essen, 1990: 38)¹⁰

9) 도르트 신조(네덜란드어: Dordtse Leerregels)는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Dordrecht)에서 작성된 기독교 신조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네덜란드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 되는 세 문서라고 불리며, 네덜란드, 남아공, 미국 등에서 칼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장로교회, 개혁교회 등)의 신앙 고백 문서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 특히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부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답변한 것인데 그 요약이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10) 본 논문은 원래 네덜란드의 역사가 판 에센(Jantje Lubbergiena Van Essen, 1913-2013)이 강의한 것을 네덜란드어로 쓴 것(제목: “Groen van Prinsterer en zijn geschiedbeschouwing(흐른 판 프린스터러와 그의 역사관)”)이며 『성경과 학문(Bijbel en Wetenschap)』 4/23 (January 1979)에 실린 것이다. 영어 번역본은 나중에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4 (1982) 205-49에 실렸다.

3. 흐룬의 정치관

기독교 정치사상은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De Civitate Dei)』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흐룬의 친구와 적 모두 그를 네덜란드 개신교 정치의 창시자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의 인본주의적 불신앙과 혁명적 세계관에 맞서 싸우면서 그의 사후에 설립될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는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확산한 세속적 세계관 그리고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에 이르는 일련의 사상들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인본주의에 기초함을 예리하게 지적했다(Langley, 1989: 10). 1815년에 네덜란드 헌법이 제정되자 그는 『네덜란드 정신에 따른 헌법 개정에 관한 고찰(Bijdrage tot herziening der Grondwet in Nederlandschen zin)』이라는 저작을 출판하여 이 헌법에 담긴 혁명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네덜란드에 필요한 것은 반혁명적 관점임을 주장했다(Van Prinsterer, 1840). 나아가 유럽 여러 도시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흐룬은 유럽의 영적, 정치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자신의 성경적 정치관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다. 통치자들의 교체, 권력의 재분배, 통치형태의 변화, 정치적 분쟁, 신념의 차이는 사회적 격변과 그 범위와 원칙에서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그 성격은 모든 정부와 모든 종류의 종교를 반대한다. 도덕과 사회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격변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역이자 우상숭배의 실천인 반기독교적 혁명이다(Van Prinsterer, 1847: 262).

시간이 흐르면서 흐룬은 상류층 사이에 지적인 기독교 정치계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신문사도 창간했다. 그는 『오란여-나사우 왕가의 자료』 편집자로 알려지면서 네덜란드의 가샤르(Gachard)¹¹⁾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다. 모틀리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부상(The Rise of the Dutch Republic, 1856)』 서문에서 흐룬의 기록 자료에 대해 빛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흐룬의 책을 영어로 번역한 판 다이크(Harry Van Dyke)는 흐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요약했다.

흐룬의 시대에 제시된 정치적 스펙트럼은 의미 있는 선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급진 좌파’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믿는 광신자들로 구성되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과잉에 대해 경고하고 절제를

11) 루이 가샤르(Louis Prosper Gachard, 1800-1885)는 벨기에의 문필가로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826년에 국가 문서 보관소에 들어갔고 1831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55년 동안 재직했다.

설교하는 따뜻한 신자들이었고 ‘보수적 우파’는 통찰력, 신중함 또는 현대적 교리를 단절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만, 이데올로기가 일관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구현될 때마다 그 결과에 반발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흐룬은 “반혁명, 기독교-역사 노선에 따른 정치의 급진적 대안”을 요구하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치적 입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Van Dyke, 1989: 3-4).

남아공의 슐레부쉬(Jan Adriaan Schlebusch)도 흐룬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한다.

흐룬에게 ‘혁명’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주권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만든 추상화를 신의 계시보다 더 높은 진리로 부당하게 높이는 합리주의 종교의 열매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은 그의 정치 이론과 참여를 형성했다… 따라서 반혁명적 또는 기독교-역사적 입장은 이 인식론적 혁명이 사회적 재난과 정치적 폭정으로 가는 길을 반대하는 것을 수반했다(Schlebusch, 2020: 120-121).

1848년 토르베케에 의해 이루어진 헌법 개정 1년 후인 1849년에 흐룬은 하원에 다시 입성하여 토르베케 헌법의 “혁명 정신”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흐룬은 베른의 스위스 헌법 변호사, 정치인, 홍보인 및 경제학자였던 폰 할러(Karl Ludwig von Haller, 1768-1854)의 정부 권위에 대한 사법적 개념에 동의하면서 권위는 권위 보유자의 양도할 수 없는 소유로 간주하였고 1848년에 슈탈이 평화와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 권위가 공공 정의에 봉사한다고 주장한 공법의 권위 개념을 제안했다. 흐룬은 헌법을 작성하고 선출의 독립성과 토론의 합리성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게임의 규칙을 고안한 토르베케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을 정통 개신교의 대표자로 설정하고 신앙 문제도 정치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흐룬과 토르베케는 여러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데 갈뱅주의자 흐룬과 루터주의자인 토르베케는 대표의 중요성, 정치 생활의 개방성 및 진정한 입헌 군주제는 함께 인정하였다.

카이퍼는 그의 마지막 대작 『반혁명적 국가학』에서 흐룬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가 반혁명당의 정치적 존재 및 목적의 화신으로 모든 당원의 자연스럽고 살아 있는 중심점이었다고 하면서 흐룬의 성경적 정치관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가 반혁명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적어도 1789년에… 발생한 폭풍은 조국을 정화했고 우리 동아리에서 잠자던 생명력을 다시 일깨워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오히려 우리를 전능자와 묶어 놓은 유대를 끊고 우리를 자기 숭배하는 인간 정신의

폭정에 빠뜨렸을 때 혁명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져온 저주를 물리치고 불변하며 거부할 수 없는 유익을 받았음을 온전히 인정하기 위함이다(Kuyper, 1916: 139-140).

요컨대 흐룬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혁명에 반대하는 복음(Tegen de Revolutie het Evangelie)”이었다. 나아가 그는 노예제도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1842년에 그는 “노예제 폐지 촉진을 위한 네덜란드 협회(Nederlandse Maatschappij ter Bevordering van de Afschaffing van de Slavernij)”에서 여러 폐지론자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1853년에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국가 위원회의 의장이 되었지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결국, 네덜란드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까지는 1863년까지 시간이 걸렸다.

흐룬에게는 반혁명적 동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강령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이것은 카이퍼와 함께 시작할 예정이었고 1848년 이후 진보, 보수, 반혁명 사이의 경계는 다소 유동적이었다. 가령 흐룬은 1850년대에 네덜란드 화학자이자 위트레흐트 대학의 교수였던 밀더(Gerardus Johannes Mulder, 1802-1880)의 보수적 선거인단 ‘왕과 조국(Koning en Vaderland)’를 통해 하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밀더는 신앙이 깊은 흐룬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1866년 4월에 흐룬은 여전히 보수파와 반모더니즘적 정당을 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해 후반에 흐룬은 보수적인 네덜란드 내각의 지도자 판 네이어펠트(Julius Philip Jacob Adriaan, Count van Zuylen van Nijevelt, 1819-1894)와 헤임스케르프(Jan Heemskerck Abrahamszoon, 1818-1897)가 특수 기독교 교육에 반대하자 이들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흐룬은 총리를 두 번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세 번 역임한 네덜란드의 중요한 정치가 헤임스케르프가 1868년에 설립한 네덜란드 최초의 정당인 보편 선거협회(Algemeene Kiesvereniging)에 가입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보수파와의 단절로 흐룬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장악한 독일 정치에 대한 그의 비판은 “혁명적” 프랑스도 대적으로 보았기에 그의 고립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고립 속에 우리의 힘이 있다(In ons isolement ligt onze kracht)”고 말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정치적 원칙의 확고함과 동시에 정치적 순교도 의미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나 오해받는 예언자처럼 느껴졌다. 카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흐룬 판 프린스터러는 자신의 신문인 네덜란드인(Nederlander)을 출간했지만, 구독자를 거의 찾지 못했고 결국 중단해야 했다. 그리고 흐룬 판 프린스터러가 자신의 정당 창설자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치에 기초를 설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롱을 거의 억제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있었기 때문이고 부흥 운동 출신

남자들은 그에게 부분적인 동정을 보였으나 여전히 확고한 정당 구성에 대해 그들 역시 거의 아는 바가 없어 그를 반대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순수하게 명목상 지원하여 “군대 없는 장군”이라고 불렀다(Kuyper, 1916: 489).

이처럼 흐룬의 정치관은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었으며 평생 외롭게 보이는 싸움을 싸웠다. 나아가 그는 한동안 여러 어려움도 당했으나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그의 후계자인 카이퍼가 등장하여 흐룬의 세계관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4. 흐룬의 교육관

흐룬은 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의 상관성을 가장 깊이 드러내면서 하원 의원으로서 행한 정치사회활동은 거의 교육 문제에 집중했다. 그의 공헌은, 학교 교육의 자유 개념과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독교의 법적, 제도적 확립에 집중되어 있었다. 처음에 그는 개신교 공립학교를 원했다. 자신은 비록 평생 자녀 없이 살았지만, 교육이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녀 교육을 언약 신앙의 핵심으로 보았다. 당시 내각은 1848년에 도입된 헌법 가운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다”라는 194조를 새 교육법에 맞추어 개정하려고 했으며 그 핵심은 학교에서 종교 교리 교육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흐룬은 각 종교(기독교, 가톨릭, 유대교)가 자기 종교에 기초한 공립학교를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1857년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공방 끝에 37대 13으로 통과된 새 교육법(Onderwijswet)은 사립학교 설립의 길을 열어 놓기는 하였지만, 정부의 재정 보조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은 1806년 학교법을 통해 발생한 공교육과 사교육 지지자들 사이의 학교 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정치가였던 판 라빠르트(Anthony Gerhard Alexander Ridder van Rappard, 1799-1869)가 제안했다. 이 법은 공교육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공립학교의 교육은 모든 종파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초등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흐룬은 개신교 교육이 사립학교에서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대중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이후 흐룬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받아들였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중립 정부는 긴급 해결책에 불과했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항상 개신교 국가였으며 따라서 개혁교회는 네덜

12) 흐룬에 대한 카이퍼의 전기는 1857년에 제정된 교육법의 역사를 깊이 조명한다(Kuiper, 2001).

란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었지만 교회가 지배하는 국가를 선호하지는 않았으며 신권을 옹호했지만, 종교적 박해를 반대했다. 호룬은 양심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따라서 가톨릭 신자와 유대인들도 공공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그룹은 역사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호룬은 종교와 양심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 가령 네덜란드에서는 성경을 코란과 동등하게 만드는 어떤 평등도 부과될 수 없었다. 호룬에 따르면 헌법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리라고 보면서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을 옹호했다. 그는 두드러진 반혁명적 원리로 로마서를 인용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로마서 13:1) 여기서 그는 즉시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로 여겨야 한다.” 조성국은 호룬의 기독교교육 사상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다.

첫째, (그는) 교육을,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보았다. 둘째, 중립적 세계관이라는 가정에 이루어지는 국가의 세계관 교육은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 방법으로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교육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프랑스 혁명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아동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적 의무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섯째, 국가 교육은...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복수체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각 종파가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여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자유를 부여받아야 하며, 모두 공립학교로서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곱째, 모든 학교가 공립학교처럼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덟째, 교육을 정치 사회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교육의 발전과 개혁도 정치 사회적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졌다 (조성국, 209: 24-26).

1860년에 개정법에 따라 비록 정부 재정 보조는 없다 할지라도 사립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자 호룬은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전국 기독교 교육협회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1867년에는 전국에 62개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후 카이퍼는 정치 투쟁을 계속하면서 반학교법 협회(het Anti-Schoolwet Verbond)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후에 반혁명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7년에 자유주의적인 코르트 판 데어 린든(Cort van der Linden)¹³ 내각은 마침내 헌법을 개정하여 23조에 기독교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

13) 뻬터 코르트 판 데어 린든(Pieter Wilhelm Adrianus Cort van der Linden, 1846-1935)은 네덜란드의 정치인으로 1913년 8월 29일부터 1918년 9월 9일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다.

정함으로써 80여 년간 지속했던 학교 투쟁을 마침내 해결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도 정부로부터 전액 재정 지원을 받는 국가이다.

5. 흐론의 유산

흐론의 영향은 심대했다. 그의 기독교 세계관은 생애 말기에 세 명의 동지들, 즉 신학자 카이퍼, 교육가 판 오텔로(M. D. van Otterloo) 그리고 정치인 쿠체니우스(L. W. C. Keuchenius)에 의해 꽃을 피웠다. 특히 카이퍼는 반혁명당을 창당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어 1901년에 수상이 되었다. 특히 카이퍼는 흐론의 기독교 세계관을 각 영역으로 확대하여 소위 ‘신갈뱅주의(Neo-Calvinism)’로 발전시켰다. 또한, 카이퍼의 사상은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와 폴렌호븐(Dirk Hendrik Theodoor Vollenhoven, 1892-1978)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고(최용준, 2005: 37-66)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세계관 포털사이트인 www.allofliferedeemed.co.uk에 보면 흐론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개혁 철학협회(Stichting voor Christelijke Filosofie: christelijkefilosofie.nl)는 흐론과 카이퍼의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도여베르트와 폴렌호븐이 발전시킨 기독교 철학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네덜란드 기독교자들의 모임인 포럼 씨(Forum C: forumc.nl)도 흐론이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할 수 있으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한다. 개혁정치연합(GPV: Gereformeerd Politiek Verbond)¹⁴ 및 기독교연합당(ChristenUnie)의 연구소는 흐론 판 프린스터러 재단(Groen van Prinsterer Stichting)이라고 불린다. 이 재단은 기독교적 정치와 관련된 소책자를 흐론 판 프린스터러-시리즈(Groen van Prinsterer-reeks)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출판했다(Bos, e.a. 1989; Hirsch Ballin, e.a. 1991).

흐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혁명당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는데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덜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을 물리치기 위한 지렛대로 그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1949년과 1951년에 자유대학교는 흐론의 역사관에 관해 비판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가 네덜란드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으로 직접 연결해 결정론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 캄쁘하위스(Jaap Kamphuis)는 흐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의 손길은 언약적 인과성이며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했다(Kamphuis, 1962). 역사가로서의 흐론의 명성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1989년에 설립된 기독교 역사가 협회(VCH: Vereniging van Christen-Historici)는 상당히

14) 개혁정치연합(Reformed Political Association)은 1948년부터 2003년까지 존재했던 네덜란드 개신교 정당으로 주로 대다수 유권자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로 그것이 공언한 원칙의 유지와 효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이 당은 증거당이라고도 한다. 2000년에 이 당은 개혁주의 정치 연합(RPF: Reformational Political Federation)과 합병하여 기독교연합당(ChristenUnie)이 되었다.

많은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외부 공격으로부터 흐룬을 방어하기도 한다. 1976년, 흐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네덜란드에서는 그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도 발행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딴 학교들도 힐버썸(Hilversum), 알텐(Aalten), 바렌드레흐트(Barendrecht), 에멘(Emmen) 등 여러 군데 있다. 나아가 그는 카이퍼와 함께 한국에도 소개되어 많은 기독교 지성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I. 결론

흐룬의 기독교 세계관은 제네바의 개혁자 갈뱅(Jean Calvin, 1509-1564)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당시 인본주의 세계관의 정체를 드러내었고 그에 맞서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주창하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기초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던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법학과 문학을 전공한 학자였으며, 네덜란드 국가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헌신했고, 신문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파한 언론인이기도 했으며, 여러 저작을 통해 분명한 성경적 역사관을 제시한 동시에 기독교 교육에도 헌신한 지도자였고 하원 의원을 두 번이나 지낸 기독교 정치인으로 카이퍼의 멘토가 되어 네덜란드 최초로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이 창당되도록 산파 역할을 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카이퍼 또한 목회자로서 네덜란드 개신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일간신문 및 주간지에 계속해서 사설을 통해 네덜란드 국민을 일깨운 기독교 언론인이었으며, 교육자로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세워 총장을 지냈고, 하원 의원 및 수상을 역임하면서 흐룬이 추구했던 기독교 세계관의 꽃을 피웠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 특히 기독교 지성인도 흐룬의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치 영역에서 아직도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원론적 경향을 보이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추구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사회에도 흐룬이나 카이퍼와 같은 유능한 기독교 정치인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영역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흐룬은 또한 복음의 고백자로 살면서 당시 세속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신앙과 학문 및 삶이 성경적으로 통합된 모범적 지도자였다.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이 된다. 현대 한국사회는 모더니즘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또한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점에서는 흐룬의 시대와 동일하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은 이 시대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동시에 여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흐룬은 혁명이 불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올바른 개혁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령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은 다양한 세계관과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분석한 후 이 세계관의 장단점을 예리하게 고찰한 후 단점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최용준, 2020).

나아가 흐룬은 기독교 교육에 헌신하여 기독교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교육의 자유 그리고 공립학교와 동등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끌어내는 데 그의 후계자 카이퍼와 함께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에도 선교사들에 의해 많은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어 귀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 사립학교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신앙적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나아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고 다음 세대를 올바로 키우지 못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거의 미전도종족 수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학부모들과 기독교 교사들이 단결하여 흐룬 및 그와 함께 한 동지들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시금 올바른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부의 동등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에는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교단별로 있으나 이러한 교회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는 매우 적다. 이러한 교회들이 먼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규모와 관계없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세워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 헌신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흐룬은 그의 후계자 카이퍼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단순한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의 여러 영역에 적용하고 실천했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정책화시켰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조직하고 기독교 학부모들을 결성하여 기독교 학교 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도 성경적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뿐만 아니라 더는 사적인 영역에 두지 말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성희찬 (2001). 흐룬 판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의 생애와 사상. **개혁정론**. 2014.
Retrieved from http://reformedjr.com/board05_04/3042 (2023.01.01)
- 정성구 (1977). 칼빈주의 운동과 Groen van Prinsterer. **신학지남**. 44(1), 61-70.
- 조성국 (2009). 흐룬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교육사상. **복음과 교육**. 5, 9-31.
- 최용준 (2005).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37-66.
- 최용준 (2020).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서울: 예영.
- Bos, E. e.a. (1989). *Mensenrechten Wereldwijd: Een gereformeerde politieke visie*. Groen van Prinsterer-reeks 61. Barneveld: De Vuurbaak.
- Diepenhorst, P. A. (1932). *Groen van Prinsterer*, Kampen: J.H. Kok.
- Hirsch Ballin, E. M. H. e.a. (1991). *Christelijke Politiek in een gesecculariseerd Nederland*. Groen van Prinsterer-reeks 65. Barneveld: De Vuurbaak.
- Kamphuis, J. (1962). *De hedendaagse kritiek op de causaliteit bij Groen van Prinsterer als historicus*. Goes: Oosterbaan en Le Cointre.
- Kuiper, R. (2001). *Tot een voorbeeld zult gij blijven. Mr. 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 Amsterdam: Buijten En Schipperheijn.
- Kuyper, A. (1880). *Ons Program*. Amsterdam: J. H. Kruyt. Harry Van Dyke (Ed.) *Our Program: A Christian Political Manifesto*. Bellingham, WA: Lexham Press. 손기화 역 (2018).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 서울: 새물결 플러스.
-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서울: 다함.
-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2 Delen, Kampen: J. H. Kok.
- Langley, M. R. (1989). *Groen van Prinsterer(1801-1876)*. Potchefstroom: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
- Motley, J. L. (1856). *The Rise of the Dutch Republic: A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 Motley, J. L. (1874). *The Life and Death of John of Barneveld*. 2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 Mulder, H. W. J. (1973). *Groen van Prinsterer staatsman en profet*. Franeker: Wever.
- Schlebusch, J. A. (2018). *Strategic Narratives Groen van Prinsterer as Nineteenth-Century Statesman-Histori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 Schlebusch, J. A. (2020). "Democrat or traditionalist? The epistemology behind Groen van Prinsterer's notion of political authority" in *Journal for Christian Scholarship* 56(3-4), 120-121.
- Schutte, G. J. (1976). *Mr. G. Groen van Prinsterer*. Goes: Oosterbaan & Le Cointre. (2005). *Groen van Prinsterer: His Life and Work translated by Harry Van Dyke*. Publisher's Imprint.
- Schutte, G. J. (2016). *Groen van Prinsterer: His Life and Work*. Translated by Harry Van Dyke. Neerlandia, Alberta: Inheritance Publications.
- Smitskamp, H. & Colijn, H. (1945). *Wat heeft Groen van Prinsterer ons vandaag te zeggen?* Den Haag: D.A. Daamen's Uitgeversmaatschappij, N.V. Translated by Harman Boersema (2017). *Building a Nation on Rock or Sand: Groen Van Prinsterer for Today*. Belleville, Ontario: Guardian Books.
- Van Dyke, H. (1989). *Groen van Prinsterer's Lectures on Unbelief and Revolution*. Jordan Station, ON: Wedge. It contains a translation (abridged) of Unbelief and Revolution at 293-539 as well as a sketch of Groen's life and time at 1-83.
- Van Dyke, H. (2019). *Challenging the Spirit of Modernity: A Study of Groen van Prinsterer's Unbelief and Revolution* (Studies in Historical and Systematic Theology). Bellingham, WA: Lexham Press.
- Van Essen, J. L. (1979). Groen van Prinsterer en zijn geschiedbeschouwing, *Bijbel en Wetenschap*. 4/23.
- Van Essen, J. L. (1982). Groen van Prinsterer and his view of History,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4, 205-249.
- Van Essen, J. L. & Morton, H. D. (1990). *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Selected Studies*. Jordan Station, ON: Wedge.
- Van Prinsterer, G. G. (1829). *Redevoering over de redenen om de geschiedenis der natie bekend te maken*. Brussels: Brest van Kempen.
- Van Prinsterer, G. G. (1834). *Proeve over de middelen waardoor de waarheid wordt gekend en gestaafd*. Leiden: Luchtmans. The 2nd ed. (1858).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35). *Archives ou correspondance inédite de la maison d'Orange Nassau*. Leide: S. et J. Luchtmans.

- Van Prinsterer, G. G. (1840). *Bijdrage tot herziening der Grondwet in Nederlandschen zin*. Leyden: S. en J. Luchtmans.
- Van Prinsterer, G. G. (1846). *Handboek der geschiedenis van het vaderland*. Leiden: S. EN J. Luchtmans.
- Van Prinsterer, G. G. (1847, 1868). *Unbelief and revolution: A series of Lectures in History*. Abridged and translated by Harry Van Dyke (1989, 2000) (Jordan Station, ON: Wedge) and now republished by Lexham Press (2019).
- Van Prinsterer, G. G. (1860). *Le parti anti-révolutionnaire et confessionnel dans l'Eglise Réformée des Pays-Bas - étude d'histoire contemporain*. Amsterdam: H. Höveker.
Translated by Colin Wright (2015). *Christian Political Action in an Age of Revolution*. Aalten: WordBridge Publishing.
- Van Prinsterer, G. G. (1864). *Vrijheid van christelijk nationaal onderwijs, in verband met scheiding van kerk en staat*.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67). *La Prusse et les Pays-Bas. À mes amis de Berlin*.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67). *L'empire prussien et l'apocalypse. À mes amis de Berlin*.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75). *Maurice et Barneveldt: étude historique*. Utrecht: Kemink et fils.
- Vos, G. J. (1886-91). *Groen van Prinsterer en zijn tijd: studiën en schetsen op het gebied der vaderlandsche kerkgeschiedenis*. Dordrecht: Revers.
- <https://www.alloflifereedeemed.co.uk/groenvanprinsterer.htm>
- <https://christelijkefilosofie.nl/>
- <https://forumc.nl/>

흐른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Groen van Prinsterer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정치인이자 역사가였던 흐른 판 프린스터러(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19세기 후반 유럽에 풍미하던 자유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에 맞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역사관, 국가관, 정치관 및 교육관을 발전시키며 언론과 출판 기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네덜란드의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기독교 정당 활동의 선구자였고 동시에 기독교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한 소위 ‘학교 투쟁(schoolstrijd)’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그의 후계자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개신교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섭리로 탄생했다고 보았으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흐른의 사상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기독교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상황에 던지는 함의도 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기독교 세계관을 역사와 국가관, 정치관 및 교육관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그의 유산을 분석한 후 그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평가함으로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흐른 판 프린스터러, 혁명, 불신앙, 기독교 정치, 기독교 학교